

체불사업주 3명 체포영장 집행

출석불응 체불사업주 체포영장 집행을 통한 기초 노동질서 확립

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2026년 5월 노동당국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체불 사업주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였다.

사업주 A씨는 청주시 흥덕구 소재 음식점에서 근로한 노동자의 임금 약 29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수 차례 출석에 불응하고,

사업주 B씨는 청주시 청원구 소재 조경공사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임금 약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출석에 불응하였으며,

사업주 C씨는 청주시 상당구 및 서원구 소재 학원에서 근로한 노동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11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여, 체불사업주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장 및 은거지에 대한 잠복 수사를 통해 검거하였다.

노동부 청주지청은 검거한 체불사업주 3명을 청주지방검찰청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송치할 예정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와 같은 의미로, 소액 사건이라도 임금 지급을 회피하면서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 | | | |
|------|----------|-----|-------|--------------------|
| 담당부서 | 노동기준조사1과 | 책임자 | 과 장 | 남성옥 (043-299-1216) |
| | 노동기준조사2과 | | 과 장 | 구재천 (043-299-1150) |
| | 노동기준조사1과 | 담당자 | 근로감독관 | 오권영 (043-299-1218) |
| | 노동기준조사2과 | | 근로감독관 | 양국환 (043-299-1230) |